

洪錫律 教授指導  
碩士學位 請求論文

7차 교육과정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여성관련 서술의 분석

2007

誠信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學科 歷史教育專攻

李元漢

7차 교육과정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여성관련 서술의 분석

洪錫律 教授指導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6년 11월

誠信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學科 歷史教育專攻  
李元漢

# 認 准 書

李元漢의 碩士學位 논문으로 認准함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誠信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1
II. 여성관련 서술 분량과 항목.....	3
III. 가족 제도 속의 여성.....	17
IV. 여성 교육과 사회 진출에 대한 시각.....	23
1) 여성교육의 등장.....	23
2) 여성의 사회진출.....	30
V. 여성의 역사적 공헌.....	35
1) 독립운동.....	35
2) 광복 이후 국가수립과 여성참정권의 실현.....	41
3) 여성의 사회적 공헌.....	44
VI. 결론.....	48

## 참 고 문 헌

### ABSTRACT(영문초록)

## <논 문 개 요>

이 논문은 현행 7차 교육과정의 한국근현대사 검인정 교과서의 여성사 서술을 분석한 연구이다.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한국근현대사를 심화 선택 과목 중의 하나로 개설하여, 독립적인 과목으로 설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한국근현대사 검인정 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한국사의 전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근현대사로 완결된 까닭에 여성 관련 서술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할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고등학교에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6종의 근현대사 교과서를 대상으로 여성사 서술을 고찰해 보았다.

현행 근현대사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가장 큰 문제점은 여성사 서술이 전체 분량의 3~6%정도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적다는 점으로 드러났다. 여성사 서술의 양적 부족은 교과서가 여성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 할 수 있다. 분량의 부족은 결과적으로 다양한 여성의 모습을 제대로 서술하고 있지 못하도록 만드는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교과서의 여성 관련 서술은 전반적으로 남성 중심적인 시각에서 별로 벗어나지 못한 채 여성을 서술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한국 근현대 여성의 삶이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가부장적 질서로부터 벗어나려 했던 움직임보다는 이에 순응하는 모습을 주로 서술하거나 사진자료 등으로 제시하고 있고, 희생적인 어머니, 아내, 딸로서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여성을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닌 종속적인 존재로서의 모습을 강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각 교과서가 대체로 근현대 여성의 다양한 모습과 사회에 대한 기

여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한 서술 분량이 지극히 적고, 신여성과 직업여성 등 다양한 여성계층의 출현에 대한 서술도 부족하다. 여성이 역사적으로 다양한 기여를 했지만, 교과서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한국 근현대 여성들이 일제에 대항하여 국가의 독립을 위해 활동한 것, 해방 이후 여성의 가장 큰 변화인 여성참정권의 획득으로 정치에 참여한 사실, 1960~70년대 산업화 및 민주화 과정에서 국가적 억압적 구조에서 희생적으로 기여한 여성 노동자의 삶에 대한 서술이 모두 그 못만큼 서술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상 본론에서 살핀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현행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여성사 서술은 양적으로 부족하며, 남성중심적인 시각에서 서술된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역사교육 과정에는 여성의 경험을 보다 적극적으로 포함시켜야 하며, 페미니즘의 관점도 긍정적으로 검토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사 교육의 내용이 될 여성사 연구가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하며, 나아가 사료의 발굴과 연구 인력의 증가, 여성사 연구에 대한 역사학 및 역사교육계의 인식 개선 등이 요구된다.

## I. 머리말

역사 연구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는 다각도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인간 이해에 관한 지식은 거의 남성중심의 이해라는 해석이 페미니스트 사이에서 지적되고 있다. 현재까지 역사 서술에서 여성의 삶은 거의 등장하지 못하였거나 왜곡되어 표현되었을 뿐이다. 그 원인은 기존의 역사 연구가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진 데 있으며, 따라서 여성이 연구한 성과라 하더라도 남성 중심의 관점을 극복하기 쉽지 않았다. 그 결과 여성의 독특한 경험이 역사 서술에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었다.<sup>1)</sup>

역사 속에 배제된 여성들의 이야기를 찾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 미국에서 새로운 성향의 운동이 태동하면서부터이다.<sup>2)</sup> 학생 운동 및 흑인운동과 함께 민권운동이 고조되고, 또 반전운동과 현대 문명 비판 등의 움직임이 미국과 서구세계 각지에 파급되는 상황에 힘입어, 여성 차별의 현실에 항의하는 ‘새 여성운동’이 전개되었던 것이다.<sup>3)</sup> 이로부터 이루어진 여성의 의식 성장은 역사 속에 숨겨진 여성의 삶을 찾게 만드는 동력이 되었고, 그 결과 이제는 여성사가 역사학의 한 분야로 자리 잡게 되었다.

2000년도부터 시작된 7차 교육과정에서 수준별 학습 방침에 의해 고등학교 2~3학년 학생은 심화선택 과목이 개설되었고, 역사 영역에서는 한국 근현대사가 심화선택 과목의 하나로 개설되었다. 한국 근현대사 과목의 신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가까운 과거를 학습함으로써 지금 살고 있는 현대에

---

1) 광삼근, 『여성과 교육』, 박영사. 2001, 3쪽.

2) 정현백, 「여성사 연구의 이론과 방법」, 『사회와 사상』, 제 19호, 1990, 380쪽.

3) 이영자, 「페미니즘」, 『한국논단』, 1999, 208쪽.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키우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우리의 근현대사는 정치 분야뿐 만이 아니라 여성사의 측면에서 격동이 연속된 시기였다. 개항, 식민지의 전락, 전쟁, 민주화 등 격동이 연속된 시기에 우리의 여성도 급격한 변화를 경험했다. 서구에서 들어온 근대교육의 등장으로 여성이 교육의 수혜 대상으로 등장했고, 해방 이후에는 민주화 과정에서 여성의 지위나 여성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현행 근현대사 교과서가 여성사를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현행 한국근현대사 과목은 김인정 교과서로 되어 있다. 따라서 6종의 한국근현대사 김인정 교과서에 수록된 여성사 관련 서술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를 분석하는 이유는 근현대 시기가 그 이전 시기와 달리 여성의 지위와 의식 사회 활동 등등 전반에 걸쳐 의미 있는 변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데 있다. 또한 한국근현대사는 하나의 완결된 교과서에 실려 있기 때문에 여성 관련 서술을 심도 있게 분석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하였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하여 교과서 속의 여성 관련 서술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교과서에 성 편향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나아가 교과서가 반영하지 못한 여성관련 서술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여성관련 서술 분량과 항목

현재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는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는 모두 6종이다.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이 채택된 교과서는 두산과 금성출판사에서 간행한 교과서이다. 이 두 교과서를 포함하여 각 출판사에서 간행한 교과서에 여성 관련 서술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sup>4)</sup>

[표1]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여성사 서술의 분량

출판사	교과서 전체 쪽수 (본문기준)	여성사 서술 쪽수 (본문기준)	비율
금성	353쪽	19.61쪽	5.60%
두산	359쪽	14.24쪽	4.06%
천재	349쪽	11.99쪽	3.43%
중앙	379쪽	14.74쪽	3.88%
법문사	331쪽	10.0쪽	3.02%
대한교과서	323쪽	17.32쪽	5.32%

각 교과서에 여성사 서술 비율은 여성 관련 서술 줄 수/본문 줄 수 ÷ 100으로 계산하였다. 예를 들어 교과서 본문이 30줄이고 여성사 관련 내용이 3줄이면 0.1장으로 계산하였으며, 사진과 삽화 등은 본문 내용에 포함하여 계산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 [표 1]이다. 이 표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각 교과서에 반영된 여성 관련 서술 분량은 전체의 3~6% 정도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적다.

4) 김한중 외 5인,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2005. ; 김광남 외 4인,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두산출판사, 2005 ; 김홍수 외 5인,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천재교육, 2005 ; 주진오 외 4인,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5 ; 김종수 외 3인,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법문사, 2005 ; 한철호 외 5인,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대한교과서, 2005.

여성 관련 서술이 가장 많은 교과서는 금성출판사에서 나온 교과서로(이하 ‘금성’으로 약칭함. 다른 교과서도 같은 방식으로 약칭함.) 5.6%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여성사 서술이 많은 것은 대한교과서로 전체 여성사 서술이 5.32%를 차지한다. 그러나 대한 교과서의 여성사 서술은 본문 서술에 비해 삽화와 자료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흥미 위주로 흐름을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두산 교과서는 전체 여성사 서술은 4.06%를 차지하나, 다른 교과서에 비해 삽화나 자료로서보다 본문에 여성 관련 내용을 기술한 경우가 많은 편이다. 중앙 교과서의 여성사 서술은 여성사 관련 항목을 다수 설정하고 있다는 데에 특징이 있으며, 분량의 비중은 3.88%로 본문 서술이 많은 편이고, 삽화도 금성 다음으로 많다. 천재교과서 여성 서술은 3.43%이며, 여성사 서술이 본문과 삽화 읽기 자료에 비슷하게 고루 서술되고 있다. 여성 관련 서술이 가장 적은 교과서는 법문사 교과서로 전체 여성사 서술이 3.02%에 불과하여 여성사 서술이 가장 많은 금성 교과서와 1.5배가량 차이가 난다.

이과 같은 여성사 서술의 부족은 교과서의 여성 배제성을 의심하도록 만든다. 더구나 여성사를 본문에 서술한 것은 1~2줄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분량이 사진이나 자료로 처리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각 교과서의 여성사 관련 서술 항목을 개화기, 일제시대, 현대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2] 개화기 여성 관련 서술

\* ( )는 교과서 쪽 수 임.

출판사	내 용	사진, 삽화
금성	여류 명창(44) 갑신정변 당일 폭약을 터뜨린 어느 궁녀(67) 명성황후(72) 폐정개혁안(81) 국채보상운동(111) 찬양회(114) 손탁 호텔(115) 노새보다 나를게 없는 조선 여인 (119) 제국 신문(126) 진명여학교, 숙명여학교 이화학당(129) 학부형들이 하인을 시켜 딸들을 업 어 내오다(129)	풍속화 (15) 3.1운동 기념 부조(18) 명성황후 국장(72) 옷감을 짜는 모습(104) 찬양회(114) 간호학교 졸업생들(114) 왕진가는 여선교사(124) 협률사(133)
두산	명성황후(52) 을미사변(62) 폐정개혁안(69) 국채보상운동(97) 갑오개혁(조혼금지, 과부 재가 허 용, 남편의 부인 학대 엄금)(101) 의생활의 변화(103) 주거 생활의 변화(104) 교육의 발흥 (이화학당, 정신여학 교) (117) 문학의 변화(122)	두루마기와 장옷(103) 장옷 입은 여인들(103) 이화학당(117) 전화 교환수(109) 명성황후 시해사건(126)
중앙	을미사변과 을미개혁(69) 폐정개혁안(77) 여자교육회(100)	이화학당 수업 장면(123) 양산 쓴 여인(125)

	<p>국채보상운동(118)          평등사회로의 이행(조혼금지,          과부재가허용, 인신매매금지)(120)          여성의 사회활동과 민중운동          (122~3)          남녀평등권주장(123)          진명여학교, 숙명여학교, 순성여학          교(136)</p>	
법문사	<p>갑오개혁(61)          을미사변(62)          폐정개혁안(69)          국채보상운동(99)          여성통문(106) 제국신문(120)          이화학당(122)          진명여학교, 숙명여학교(123)          여성교육확대(124)</p>	<p>장옷을 입은 여인, 윤고려          (106)          이화학당(124)          협률사(128)</p>
대한	<p>갑오개혁(58~9)          폐정개혁안(67)          국채보상운동(93)          갑오개혁(97)          제국신문(112)</p>	<p>춘향전(12)          민비조문객(59)          김홍도의 자리짜기(96)          윤고려(101), 이화학당(115)</p>
천재교육	<p>을미사변과 단발령(86~8)          조혼금지, 과부 개가 허용(87)          폐정개혁안(93)          양전의숙, 진명여학교, 숙명여학교          (110)          국채보상운동(121)          의식주의 변화(127~9)          제국신문(138)          이화학당, 정신여학교, 배화여학교          (142)</p>	<p>장날의 풍경(15)          두루마기와 장옷(127)          간도이주민생활 모습(129)          이화학당(142)</p>

개화기 여성사 관련 항목 가운데서 6종에 교과서에 고루 서술되어 있고 분량에서도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은 제시하면 명성황후, 폐정개혁안 중 과부재가허용, 갑오개혁 중 조혼금지와 과부 재가 허용, 의식주의 생활의 변화, 여성교육의 확대 (이화학당, 정신여학교, 숙명여학교, 순성여학교), 부녀들이 많이 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제국신문, 국채보상운동 등이다.

여러 교과서의 이 시기 여성사 항목 가운데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판소리 여류 명창 진채선<sup>5)</sup>에 대한 소개이다. 그리고 갑신정변 당일 폭약을 터뜨린 어느 이름 없는 궁녀<sup>6)</sup>가 서술되어 있는 점도 주목된다. 이는 교과서가 역사 속에 숨은 다양한 여성의 모습을 소개하려고 노력한 것을 나타낸다. 최초의 여성단체인 찬양회에 대해 비중 있게 소개하고 있는 교과서도 있다. ‘조선최초의 여권 선언문’을 소개하면서 여성들이 모여서 상소를 올

5) 김한중 외,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44쪽. ‘여류 명창이 경회루에 나타난다’ “홍선대원군은 판소리 애호가로 그의 집에는 당대 명창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때문에 1876년에 경회루를 새로 짓고 축하연을 베풀 때 전국 각지의 이름 있는 명창들이 초대되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별로 알려지지 않은 고창 출신의 소리꾼 한 사람이 단정히 갓을 눌러쓰고 있었다. 이 소리꾼은 다름 아닌 판소리 대부 신재효가 특별히 뽑아 가르친 여류 명창 진채선이었다. 당시 여자가 판소리를 한다는 것은 사회 분위기가 있을 수 없었다. 아무리 재능이 있는 기생이나 무당이라도 판소리는 아예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진채선은 궁궐 안에서 당당한 자세로 듣는 사람의 혼이 나갈 정도로 기가 막히게 소리를 해냈다”

6) 김한중 외,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67쪽. ‘갑신정변 당일 폭약을 터뜨린 어느 궁녀’ “1884년 10월 17일(양력 12월 4일)밤, 우정국 개국 축하연 연회가 한참 무르익고 있을 때 갑자기 “불이야!”하는 소리가 들렸고 일순간에 연회장 안팎 아수라수장이 되었다(중략) 김옥균이 훗날 <<갑신일록>>에서 갑신정변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궁녀 모씨(나이는 지금 42세인데, 신체가 남자처럼 건장하고 힘이 남자 5,6인은 당해낼 만하다. 그래서 본디 고대수(顧大嫂)로 불렸다. 별호는 중진이 쫓겨났을 때 가까이 모셨으므로 얻어진 것이다. 전부터 우리 당에 붙어 이따금 비밀을 통보해 왔다)가 화약을 대통에 조금씩 넣어 가지고 있다가 외간에 불이 일어남을 신호로 삼아 통명전에 불을 지르기로 한다”. 결정적인 순간에 폭약을 터뜨리는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양반도 군인도 아닌 궁녀였다.

리고, 관립여학교 건립에 대해 국가에 건의하는 등에 최초의 여성운동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sup>7)</sup>

명성황후는 각 교과서가 모두 비중 있게 서술하고 있는 항목이다. 국모가 외세에 희생당한 사건인 을미사변의 서술에서는 각 교과서가 모두 명성 황후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외의 항목의 서술에서는 왕비, 민비, 명성 황후 등의 호칭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민비’라는 용어는 일본에 의해 의도적인 격하된 것이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sup>8)</sup>

개화기 여성 관련 서술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여성교육 관련 서술이다. 그러나 여성 교육 관련 서술도 단순 나열식이 많고, 근대 교육의 수혜를 받은 여성은 어떤 계층이며, 이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는 서술되어 있지 않다. 교육을 통해 일부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늘어났지만, 교과서에는 여성의 사회적 활동 또한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

---

7) 김한중 외,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114쪽. ““이목구비와 사지오관 육체의 남녀의 차이가 있는가. 어찌하여 사내가 벌여주는 것만 앉아서 먹으며 평생을 깊은 골방에 갇혀 남의 절제만 받을 것인가! 우리보다 먼저 문명이 개화한 나라들을 보면 남녀의 권리가 동등하다...이제는 우리 나라도 여아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재주를 배우게 하여 나중에 여중 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학교를 세우고자 한다.”

이 글을 실었던 단체는 찬양회였다. 단체의 명칭으로 볼 때 종교와 관련된 것같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단지 여성 개화를 목적 한 것이다.(중략) 이 기사를 게재한 <황성신문>도 찬양회의 뜻에 놀라움을 표시하였다. 찬양회는 나아가 여성의 행동을 자유롭게 해 달라고 대궐 앞에서 상소문을 올렸다.

“출입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장옷을 쓰지 말고, 가마를 타지 말며, 우산이나 들고 다니게 해달라.”는 내용이였다. 이들은 1898년 서울에 여학생 30명으로 순성 여학교를 열었다.“

8) 김광남 외, 『한국 근현대사』, 두산출판사, 39쪽 “.....민비는 외척 등용의 길을 마련하여 세력을 확대해 갔다”

위의 교과서, 62쪽. “...명성황후는 반일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이에 일본 침략자들은 명성황후를 시해는 을미사변을 일으켰다(1895)”

[표3] 일제시대 여성관련 서술

\* ( )는 교과서 쪽수임.

출판사	내 용	삽 화
금성	군위안부(163), 친일인사 (송금선, 김활란) (165) 송죽 형제회(167) 네루가 딸에게 보내는 편지 (174) 대한민국 임시 헌장(제3조. 제 9조)(177) 광주 학생 운동(185) 남자현(195), 근우회(209) 여성운동과 사회적 성장(217) 정종명(217) 사진 신랑을 찾아 하와이로 간 신부(223) 여성의 생활 변화(235) 조선 여자 교육회(235)	여성 참정권 운동(144) 신부인 협회(152) 군위안부(163) 친일여성(165) 대한 여자 독립선언서(173) 유관순(180) 정종명(217), 사진신부(223) 이광춘과 박기옥(185) 경성방직회사광고(204)
두산	군위안부(154~5) 김순애(164), 유관순(169) 네루가 딸에게 보낸 편지 대한 임국 임시헌장 (3조, 9 조) (177) 조선 여자 교육 협회, 조선여 자 청년회, 조선 여자 기독교 청년회, 불교 여자 청년회, 조 선 기독교 절제회, 대한 민국 애국 부인회, 대한 애국 부인 회(205) 근우회(206),	여성 근로 보급대(154) 군사 훈련하는 여학생들(154) 군위안부(155) 유관순(169) 경신참변 피해(190) 각종 여성 잡지(205)

	토산 애용 부인회(211), 조선 여자 교육회(233) 이화 여자 전문 학교(233)	
중앙	군 위안부(읽기자료)(175) 유관순의 죽음(186) 여성운동(220) 신여성, 근우회(221~2) 개벽(253) YWCA(253)	군위안부 여성들(175) 유관순(186) 광주 학생 운동(200) 여성 노동자들(220) 신여성(221), 태극성 광고(229), 브나로드(232) 강주룡(237) 남녀 노동자 민족별 임금추이 (표)(238), 민족의식을 고취시킨 영화들(258)
법문사	위안부(156,158) 광주 학생 항일 운동(178), 여성운동(195), 노동운동 근우회(198~9) 노동자들의 생활(207) 상록수(탐구) (228)	위안부(158) 제암리 학살(166) 근우, 여자 사론(195) 브나로드 운동(204) 원산 총파업(208) 대한인국민회(211) 신여성(214)
대한	군위안부(152~3) 송죽회(157) 광주학생운동(170~1) 근우회(202~3) 이주동포들의 삶(214~6) 신여성의 등장(232~3)	일어 배우는 부모(145) 제암리 학살(160) 김상옥 어머니(172) 여자 정구 대회(198) 브나로드(207) 태극기 가슴에 안고 조국의 광복을 기원하는 하와이 동포들(216) 지식인 남녀 풍자(227)
천재교육	정신대(169) 임시 정부 현장(188) 광주 학생 운동(197) 여성운동(224)	위안부(170) 국경 검문(175) 제암리 학살(181) 이광춘과 박기옥(197)

	조선 기독교 여자 청년회 연합회(250)	근우와 여자 시론(225) 물산장려운동(230) 브나로드 운동(233) 일본어 쓰는 여학생(243) 신사참배(246)
--	------------------------	---

[표3]에 정리된 일제시대의 여성 관련 서술 항목을 살펴보면 각 교과서가 위안부, 제암리 학살, 근우회, 유관순, 대한민국 임시 헌장, 여성운동, 노동 운동 등에 큰 비중을 두고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정종명, 남자현<sup>9)</sup>, 허정숙<sup>10)</sup> 등 여성 독립 운동가가 소개되어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신한 청년당이 파리 강화 회의에 파견한 김순애(김규식 부인)를 언급한 점도 긍정적이다.<sup>11)</sup> ‘위안부 문제’(일본군 성노예)는 각 교과서가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서의 ‘위안부’ 서술내용을 살펴보면 여성의 정조가 유린된 것을 강조하는 차원에

9) 금성, 『한국 근현대사』, 195쪽 ‘하얼빈에서 순국한 여성 독립 운동가, 남자현’ “(중략) 만주에서 남자현은 독립 정신의 고취와 여성 계몽에 힘썼다. 1925년에는 조선 총독 사 이토를 암살하기 위해 국내로 들어왔으나 일본 경찰의 삼엄한 경비를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만주로 돌아와 독립 운동 단체들의 통합에 힘썼다. 1928년 만주 길림에서 김동삼, 안창호 등 47명의 독립 운동가들이 일본의 사주를 받은 중국 경찰에 검거되자, 정성껏 옥바라지를 하고 석방 운동에 힘써 보석으로 풀려나게 하였다. (중략) 1933년 남자현은 60세가 넘는 나이로 만주 주재 일본 대사를 처단하려는 계획에 참여하였다가 하얼빈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남자현은 보름에 걸친 단식을 하는 등 일제에 강력히 저항 하였으나, 고문과 6개월에 걸친 토옥 생활로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 순국하였다.

10) 김한중 외,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197쪽. ‘조선 의용대와 조선 의용군’ 서술에 언급된 부분은 “한편, 화북에서는 최창익, 허정숙 등의 중국 공산당의 조선인 간부인 무정과 함께 ‘항일 조, 중 연합, 조선의 독립 해방’을 목적으로 새로운 항일 민족 통일 전선체의 결성을 추진하였다.”

11) 김광남 외, 『한국근현대사』, 두산출판사, 164쪽. “신한 청년당이 파리 강화 회의에 한국 대표로 김규식을 파견한 사실은 그 후에 3.1운동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대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중략) 또한 신한 청년당은 국내에서 제 1차로 선유혁·김철 등을 파견하고, 제 2차로 서병호·김순애[김순애부인]·백담규 등을 파견하였다.

서 서술하고 있다. 여성의 순결이 훼손당한 것에 분개하는 것은 여성 중심이라기보다는 남성 중심의 관점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군위안부’ 라는 용어 역시 잘못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sup>12)</sup> 이 용어는 일본군을 주체로 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설정하여 여성의 수동성을 고찰시킬 우려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 용어를 쓰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최근 유엔 인권소위에서 위안부 문제가 전시하 세계 여성의 보편적인 인권 침해 문제로 규정되면서 ‘일본군 성노예’(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라는 용어가 새롭게 탄생되었다. 이제는 교과서가 ‘위안부’가 아니라 ‘일본군 성노예’라는 표현을 써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sup>13)</sup>

식민지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점차 노동자의 의식 각성과 조직화가 진행되는 한편, 자본의 수탈 대상이자 가부장적 질서의 피해자로서의 성격이 중첩되고 있는 여성노동자의 의식 각성과 조직화도 아울러 진행되기에 이르렀다. 대부분의 여성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한다. 여성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에 시달렸던 상황은 그런대로 서술되어 있는 편이다<sup>14)</sup>. 여성노동자 강주룡이 을밀대에서 시위

12) 김광남 외, 『한국근현대사』, 두산출판사, 155쪽 “일제는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 침략전쟁으로 확대하면서 우리나라의 여성들을 여자 근로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군 위안부로 동원하였다”

한철호 외, 『한국근현대사』, 금성출판사, 152쪽 “(중략) 일제는 우리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 가 군대 위안부로 만드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 그런데 이러한 끔찍한 범죄 행위에 일본 정부가 직접 관여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거의 반 세기나 지난 뒤였다.

김홍수 외, 『한국근현대사』, 천재교육, 169쪽 “(중략) 어린 학생들과 여성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일제는 어린 학생들은 근로 동원이라 하여 군사 시설 공사와 토목 공사에 동원하였으며, 여성들도 근로 보국근무대 라는 이름으로 각종 공사에 동원하였다. 또 전쟁 막바지에 여자 정신대 근무령을 만들어 12세부터 40세까지의 미혼 여성 수십만 명을 강제 동원하여 군수 공장에서 일하게 하였다.

13) 신영숙, 「일제 시기 여성사 연구에 있어 민족과 여성 문제 -군위안부를 중심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역사와 현실』 45호, 한국역사연구회, 2002 참조.

하는 사진이 제시되어 있는 것은 당시 여성노동자의 삶을 사진으로나마 소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신선하나, 본문 서술에서 제외 된 것은 물론 교과서의 색인에 빠진 점은 아쉽다.<sup>15)</sup>

일제시대 여성운동에 대한 서술은 단체 위주로 되어 있다. 각 교과서에서 모두 소개하고 있는 근우회를 비롯하여 조선여자교육회(금성, 두산) 조선여자청년회(두산),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두산), 불교여자청년회(두산), 조선기독교절제회(두산), 대한애국부인회(두산) 조선기독교여자청년회연합회(천재교육)등이 소개되어 있다. 1920년대 이후 일제의 통치방식 변화,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청년운동 및 소년운동이 활발해진 바 있는데, 여성운동 또한 같은 맥락에서 활기를 띠고 있었음이 소개되어 있다.<sup>16)</sup>

한편 각 교과서가 신여성 즉 여성 인텔리 계층의 형성과 그들 간의 교류, 일제의 가족법 규정인 호주제 등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분석은 뒤에서 다루고자 한다.

---

14) 김종수 외, 『한국근현대사』, 법문사, 207쪽 ‘일제 강점기의 노동자들의 생활’ “어두컴컴한 공장에서 감독의 무서운 감시와 100도 가까운 온도 속에서 뜨거운 공기를 마시면서 육골이 쭈시고 뼈가 으스러지도록 노동을 하는 여성 노동자들은 대개 15~16세 혹은 20세 전후로 대부분은 각지 농촌에서 모집되어 온 것이다. 그들은 하루 최고 15~16전으로 6~7년 동안 이런 환경 속에서 괴로운 훈련을 겪은 다음에야 겨우 40~50전을 받게 된다 (중략)노동 시간은 길고 식사는 형편없어 그들의 영양 상태와 건강은 극도로 나빠지고 있다. 이 여성들의 낮빛은 마치 중병 직후의 환자와 같고 몸은 쇠약할 대로 쇠약하여 줄도하는 일이 하다한데, 공장 내에는 특별한 규율이 있어 조금이라도 그 규율을 어기면 즉각 매를 맞는 형편이다. -조선일보’ 1936.7.2- “

15) 주진오 외 4인,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5, 237쪽. ‘회사의 횡포를 고발하기 위하여 을밀대 위에 올라가 있는 강주룻’ “그녀는 평양 고무 공장의 노동자로 1931년에 파업 투쟁에 참여하였던 인물이다.”

16) 김광남 외, 『한국 근현대사』, 두산출판사, 205쪽. “1920년대 초에는 여자 청년회, 부인회 등 수 많은 여성 단체가 결성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 지방에서도 야학, 강연회 등을 통한 문명퇴치, 풍습 개량, 지식 계발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들이 조직되었다.”

[표4] 현대사 여성관련 서술

\* ( )는 교과서 쪽 수 임.

출판사	내 용	삽 화
금성	YH 여공의 시위 모습(336) 세계에서 여성 정치 참여율이 가장 높은 나라 스웨덴(338) 한국인의 한을 담은 영화 서편제(346) 자유부인 논쟁(348) 광복 이후 의식주의 변화(350)	사과를 파는 소녀(260) 휴전협정 반대시위(271) 3.15 부정선거(279) YH여공 시위(336) 이소선 여사(336) 의생활의 변화(350)
두산	YH시위(300) 노동운동과 여성운동(334) 21세기 남녀 평등 현장(읽기자료)(336) 가족법 개정(337) 인구문제(340)	북조선 노동당 결성(275) 민의원 개원식(291) YH시위(300) 청계피복 노조(336) 여성운동(336) 인구분포의 변화(340)
중앙	YH노동운동(354) 여성 역할의 증대(359) 21세기 남녀 평등현장 (읽기자료)(360)	3.15부정선거(297) 교복자율화(311) 이산가족상봉(328)
법문사	남녀 고용 평등법(309) 여성 역할의 증대, 21세기 남녀평등 현장(2001) (312)	전쟁고아(260) 이산가족 상봉(292) 소녀 행상(296) YH 사건(308) 서편제(326)
대한	피해여성모습(256~7) 가족 변화(308) 해외 한인 사회(312) 영화로 보는 역사(320~1)	3.15투표(267) 소녀행상(294) 이소선 여사(306) 여성시위(309) 모성보호(309),연변(312), 미국 여성 행사(312),

		쉬리 포스터(318)
천재교육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 진출(332) 가족계획에서 출산장려로(333) 자유부인 논쟁(344)	3.15 부정선거(288) 핵가족(332) 도시 여성 근로자들의 귀향 행렬(333) 여성의 사회 진출(333) 여성근로자(334) 두발 자유화(340) 쉬리(345)

해방 이후 현대사에 대한 서술 중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진 항목들로는 여성 역할의 증대, YH 여공시위, 21세기 남녀 평등 헌장, 자유부인 논쟁, 가족제도의 변화 등이 눈에 띈다.

해방 이후 핵가족화 되면서 여성의 지위 상승과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각 교과서가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여 소개하고 있다. 21세기 남녀 평등 헌장<sup>17)</sup>(두산, 중앙, 법문사)을 읽기 자료로 첨부하여 남녀평등의 실현을 소개하고 있는 것, 1980년대의 가족법의 개정<sup>18)</sup>(두산)을

17) 김광남 외, 『한국근현대사』, 두산, 336쪽. ‘읽기자료 21세기 남녀평등헌장’ (중략) 1. 남녀는 가정 안에서 역할과 책임을 공유한다. 특히 자녀 양육은 남녀 모두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남녀가 평등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다양한 가족형태를 존중한다.

1.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사회적인 기여로 인정되고, 마땅히 보호받는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1. 남녀는 능력에 따라 동등하게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이에 걸맞는 대우를 받는다. 여성은 고용과 임금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공유한다. 장애인을 포함한 소외 여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1. 남녀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동등하게 행사한다. 정치와 공공 부문에 여성이 참여하는 기회를 늘리며,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1. 남녀는 동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갖는다. 남녀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없애도록 교과 내용을 개선하고, 지식 정보 사회를 맞아 여성의 잠재적 개발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

18) 김광남 외, 『한국근현대사』, 337쪽. ‘1980년 개정된 가족법 주요 내용’

(1) 8촌 이내 혈족은 친족이 된다. 4촌 이내의 인척은 모두 친족이다. 부부 중 한쪽이 사망

언급하여 여권의 성장을 담아내고 있는 것도 확인된다.

여성 노동 운동으로 YH사건을 서술하여,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노사문제와 여성 노동자의 문제를 다루었다. 그러나 1960~70년대 산업화로 인하여 섬유, 가발 등 경공업 분야에서 여성노동자들이 경제성장에 공헌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이, YH사건만 제시한 것은 문제점이다.

여성의 지위 상승과 사회 참여는 일제시대 보다 해방 이후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러나 교과서는 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각 교과서의 여성 관련 서술의 분량은 일제시대가 가장 많고 현대사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교과서의 여성 관련 서술은 본문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사진, 자료, 도움말, 탐구 활동 등의 방법을 통해 별도로 처리되는 등 보조서술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교과서의 본문에서 여성 관련 서술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다. 이것은 여성사가 주요 관심 대상이라기보다는 흥미 위주로 접근된 때문이 아닌가 우려된다. 서술 되어 있는 여성사가 교과서 안에서 곁도는 느낌을 주고 있다. 교과서 상에 여성사는 피상적이고 부차적인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다.

---

한 경우에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도 재혼을 하게 되면 종전 처가 쪽과의 인척 관계가 없어진다.

- (2) 부부의 동거 장소는 부부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 친권은 부모가 똑같이 행사하며, 생모와 이혼모도 친권자가 될 수 있다
- (3) 호주는 신분상의 지위이므로 상속이 아닌 호주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장남도 호주 승계를 포기 할 수 있으며, 여성 호주의 지위를 보장한다. 호주의 가족에 대한 입적 동의권 · 분가 강제권 · 거소 지정권 · 각종 청구권 · 부양 의무 등 권리 의무를 삭제하고, 특히 호주가 되면 당연히 상속받던 분묘에 속한 임야, 농지, 족보, 제구 등도 실제로 제사를 지내는 사람에게 상속된다.
- (4) 호주 승계 여부와 결혼여부 관계없이 자녀들의 상속분은 균등하게 1. 배우자인 경우에는 남편, 아내 구별 없이 1.5로 한다. 상속인의 범위를 4촌으로 축소한다.

### Ⅲ. 가족 제도 속의 여성

근대 사회가 진행되는 동안 가족제도는 많은 변화를 이루었다. 서구 사회에서는 근대 산업화 과정에서 부부중심의 핵가족제로 변화한다. 가부장적 가족제도로부터 핵가족제로의 변화는 문화에서도 가족구성원 사이의 평등성이 높아지는 쪽으로 변화가 진행된다.

그러나 교과서에 서술된 가족제도의 내용은 남성 중심의 편향적 관심이거나 가치들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결과 여성을 독립적인 인간으로 서술하지 않고, 가부장적 가족제도 속에서 헌신하는 어머니 혹은 아내로서의 모습이 강조된다.

[그림1] “김상옥 어머니 묘지 기사(동아일보 1924년 4월 8일)<sup>19)</sup>



김상옥 묘지 기사(동아일보, 1924. 4.8) “아! 가슴에 품은 그 뜻은 어디다 두고 이제 공동묘지 한 모퉁이에 누웠느뇨” 라고 끝을 맺고 있다. 김상옥의 사진 뒤에 묘지에서 통곡하는 김상옥의 어머니가 보인다.

이 삽화와 설명은 종로 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후 순국한 김상옥의 어머니

19) 한철호 외 5인,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대한교과서, 2005, 172쪽

에 대한 것이다. ‘근로기준법 준수’를 주장하며 분신자살한 전태일의 어머니인 이소선 여사가 아들의 영정을 안고 오열하는 삽화도 소개되어 있다.<sup>20)</sup> 이와 같이 국가적, 민족적 거사 뒤에 가려진 가족들 특히 어머니의 아픔과 고통을 당연시하는 시각이 교과서 서술에 배여 있는 것이다. 우리와 같이 제국주의 지배를 겪은 국가에서 ‘민족’은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sup>21)</sup> 그러나 민족과 전통을 지킨다는 미명 아래 여성을 주변화 시키고, 민족이라는 거대 담론에 여성을 매몰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노동과 관련된 담론의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여성의 희생적인 모습을 강조하는 양상은 미국으로 사진 속에 신랑을 찾아간 ‘사진신부’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서술에도 나타나 있다.

1902년 하와이 이민이 처음 시작된 이래 1905년까지 65척의 배로 7천여 명이 하와이 이민단으로 떠났다. 약 7천여 명이 하와이 이민단으로 떠났다. 약 7천 명에 달하는 조선인 남성 노동자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결혼 이였다. 대부분 미혼으로 건너와 이민족 여자와 결혼하기를 꺼린 이들은 궁리 끝에 고향에 친지에게 사진을 보내 맞선을 주선해 줄 것을 부탁 하였다. 하지만 남자들이 보낸 사진은 이민 올 때 찍은 것이므로 실제 인물과는 너무 다른 경우가 많았다. 낡은 사진 한 장을 받고 바다를 건너온 신부들은 신랑의 늙고 초췌한 모습에 절망했지만 대부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결혼식을 올렸다 (중략) 이들은 먹고 사는 일, 자식 가르치는 일 그리고 일본에 빼앗긴 조국의 독립 세 가지를 위

---

20) 한철호 외 5인,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대한교과서, 2005, 306쪽. “1970년에 근로 기준법을 지키라고 외치며 분신한 전태일의 장례식에서 가족들이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21) 윤택림, 「민족주의 담론과 여성 : 여성주의 역사학(feminist historiography)에 대한 시론」, 『한국여성학』, 제10집, 한국여성학회, 1994 참조 (최혜진, 「페미니즘 시각에서 본 국사 교과서 -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서술 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 석사논문, 2004, 35쪽 재인용)

해 노력했다(중략)<sup>22)</sup>

“(중략)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결혼식을 올렸다”라는 교과서 서술은 사진 속의 신부들이 가부장 질서 속에 희생된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였다고 표현하고 있다. 실제 사진 속의 신부들은 속아서 간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사진 신부들은 고학력 여성들로 미국에 가면 살림부인이든 공부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말만 믿고 온 경우가 많았다. 남자 측에서 연령과 나이를 속여서, 부부 간에 심각한 연령차이가 나고, 여성 측의 학력이 높고 지식이 월등한 것이 보통이었다. 더구나 막상 온 미국의 현실은 열악했다. 대부분 사탕수수밭 농장의 일꾼들이 많았고 엄격한 통제를 받으면서 하루 10여 시간의 중노동을 해야 했다. 많은 여성들은 참고 살았지만 상당수의 여성들이 제대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었다. 속아서 미국에 와서 이를 숙명으로 받아 드리고 결혼한 여성들은 사진결혼에서 오는 불화와 이혼, 이국 백인 남성들에게 받는 갖가지 모욕과 공포 등을 감당해야 했다.<sup>23)</sup> “이들은 먹고 사는 일, 자식을 가르치는 일 그리고 일본에 빼앗긴 조국의 독립 세 가지를 위해 노력했다”라는 교과서 서술은 은연중에 여성은 가부장 가족 질서 속에서 희생하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

22) 김한중 외 5인,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2005, 233쪽.

23) 박용옥, 『한국 여성 항일 운동사연구』, 지식산업사, 1996, 91~7쪽.

[그림2] “동생을 등에 업고 사과를 파는 소녀 행상”<sup>24)</sup>



동생을 업고, 사과를 파는 소녀의 모습도 이와 유사한 사례이다. 해방 직후 열악한 경제적인 상황에 몰려 많은 여성이 생활일선에 나서야 했다. 그런데 이 시기의 여성을 가정에서 육아는 물론 생계까지 책임을 져야하는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교과서 속에 나타난 여성의 모습은 자식을 위해 우는 어머니,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딸로 대표된다. 이러한 이미지로의 고착은 은연중에 여성이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희생하여 되는 존재로 인식되도록 만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근대사회가 시작된 이래 진행된 가족제도의 변화 전체를 주로 현대사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현행 교과서의 중요한 문제점 가운데 하나이다. 이에 따라 일제에 의해 강제 이식된 가족법인 호주제와 그 문제점에 대한 서술이 빠지게 되었다. 가족제도의 변화에 대한 서술이 현대사의 핵가족제에 치중하게 된 것도 이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근대와 현대의 가족제도의 서술에 심한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호주제는 한국근현대사의 가족제도를 설명할 때

24) 김한중 외 5인,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2005, P.260.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교과서가 호주제를 배재하고 있는 것이다.

일제가 서구의 핵가족 제도와 관련된 법제도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에도 시대의 사무라이 가족규범인 이에(家)제도가 재구성되어 ‘근대적 이에(家)제도’로 개편되었는데, 이 제도는 강력한 호주권과 가독상속(家督相續)제가 핵심이다. 메이지 민법은 家長의 도덕적 우월성을 확정하고, 가장인 호주에게 강력한 권력을 부여한 바 있다. 장남이 단독으로 호주권 및 가산을 계승하는 가독 상속제가 성문화된 것이다. 일본의 메이지 정부는 이에(家)를 국가의 기본 단위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家)제도는 단순히 가족제도가 아니라 전 주민을 조직하는 것이며 천황을 살아 있는 조상으로 섬기게 하는 것이었다.<sup>25)</sup>

1894년 갑오개혁으로 봉건적 신분제도가 폐지된 후 호적의 목적도 근대적 내용으로 바뀌게 되었다. 일제는 식민지 조선에 이에(家)제도를 적용하여, 1909년 ‘민적법’을 공포하고 이어서 1921년 ‘조선후적령’을 공포하여 일본 호적법을 차용했다. 이는 호주를 중심으로 한 부계 친족제를 법제화한 것이었다. <sup>26)</sup> 또한 일제는 1912년 ‘조선민사령’을 공포하여 민사관련 규정을 대부분 일본 민법에 의거하여 재편하였다. 이로서 상속, 증여, 매매, 이혼 등의 모든 법적인 권리가 남성에 집중되면서 여성을 법적 무능자로 만들었다.<sup>27)</sup>

이러한 변화는 일본의 이에(家)제도 이식을 수반하였으며, 종래의 종손 개념이 호주라는 개념으로 바뀌고, 나아가 법적인 지위를 획득한 것이었다. 조선은 17세기 종법제도가 실시되면서 가부장적인 질서가 강화되어 종손이 가문의 제사를 이어갔다. 그런데, 종손이라는 지위가 일제의 시각과 필요에

25) 유해정, 「일제 식민지하에 여성 정책」, 『우리 여성의 역사』, 청년사, 2000, 275~7쪽

26) 유해정, 위의 논문, 276쪽.

27) 한국여성연구회 여성사분과 편, 『한국여성사 -근대편』, 풀빛, 1992, 51~2쪽.

의해서, 국가가 승인하는 법률상의 지위인 호주로 대체되어버린 것이다.<sup>28)</sup> 이처럼 우리의 종법제도와 일본의 가족제도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가장의 권위는 법적으로까지 인정을 받으면서 부계혈통중심의 가족제도가 자리 잡아 오히려 여성의 지위는 약화되었다.

일제에 의해 이식된 호주제, 부계입적혼, 가족을 단위로 한 호적제도야말로 현대 한국 가족에 직계가족 원리 및 이에 입각한 가족관계가 강고하게 뿌리 내리도록 하는 결정적 기반이 되었다. 일제가 조선의 가족제도와 일본의 이에(家)제도를 융합하여 새로운 가부장적 가족을 출현시킨데서 유래한 호주제와 호적제도는 식민지 권력이 조선 민중을 완벽하게 관리하기 위한 장치였다.

해방 이후 일본의 호주제와 호적제도는 그대로 답습되어 여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유지되었다. 특히 박정희 정권은 가족주의적, 민족주의적, 국가주의적인 이념을 동원하여 장기집권이 가능한 체제의 구축을 추진하였다. 박정희 정권의 전략은 서구적 핵가족과 같은 가족형태를 떠면서도 가족관계의 원리는 유교적 가족규범 및 가족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가부장적 가족질서의 구축을 추구하였다. 한편으로 가족계획사업을 통해 서구적 핵가족제과 같은 가족형태를 창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법에 호주제를 유지함으로써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족제도를 재생산하려고 했던 것이다. 해방이후의 독재정권들은 호주제를 한국전통으로 미화시키면서, 실제로는 국민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였다.<sup>29)</sup>

현행 교과서에 호주제가 반영되지 못한 이유는 대체로 호주제 존속론자들의

---

28) 김수영, 「근대화와 가족의 변화」, 『한국현대여성사』, 한울 아카데미, 2004, 143~150쪽.

29) 김수영, 위의 논문, 155~168쪽.

강력한 반발 때문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실제로 호주제 존속론자들은 호주제를 우리의 전통과 미풍양속으로 옹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 동안 호주제가 지속된 근본적인 원인은 정권의 탐욕에 있었다. 호주제는 결국 해방 후 60년이 지난 2005년도에 폐지되었다.

교과서가 호주제를 서술해야 할 필요성은 이처럼 여성사적 관점에서 뿐만이 아니라 정치사적 관점에서도 제기된다. 어쨌든 호주제는 일제 의해 강제 이식된 이래 최근까지 유지되면서 우리 가족제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호주제에 대한 서술이 교과서에 배재되어 있는 것은 중요한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IV. 여성교육과 사회 진출을 바라보는 시각

여성사의 관점에서 볼 때, 근대사회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여성이 교육의 수혜자로 등장한 것이다. 여성교육의 등장으로 교육 혜택을 받은 소수의 여성은 ‘신여성’이라는 새로운 계층을 형성했다. 그러나 현행 교과서는 여성교육 자체에 대해 대단히 피상적으로 서술하고, 신여성의 출현과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 1) 여성교육의 등장

1876년 개항 이후 외국의 문물이 들어오게 되었다.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열강에 맞서 자주적인 근대국가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대교육이 필요했다. 서구의 남녀평등 사상이 유입이 되면서 여성교육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했다.

법문사 교과서는 이화학당 교장인 프라이가 쓴 글을 통해서 여성교육의 확대과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이화 학당의 교장 프라이가 강조한 ‘여성을 위한 고등 교육의 중요성’

이화학당의 경우 학생 모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남녀유별이라 하여 남자 교사가 수업할 때는 병풍을 치고 하기도 했고, 여학생이 잘못을 하더라도 여자의 속살을 남자 교사에게 보일 수 없다하여 종아리를 때리지 못하게 하였으며, 체육시간에 체조와 뽀박질을 하면 상스럽다 하여 학부형들이 집으로 데리고 가기도 하였다.(중략) 우리가 첫 번째 중등과 학생을 졸업시켰을 때(1908) 대학과정을 공부하기 원하는 동시에 할만한 능력이 있는 몇몇 학생들이 있었다. 수십 년 동안 한국여성들은 자신을 위한 향상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무지 속에 만족하고 살아왔으나, 이제는 그들이 남자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기까지에는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중략) 5년 전만 하더라도 개신교 계통의 학교 외에는 아무 학교도 없던 서울에서만도 20여 개의 여자를 위한 학교가 설립되었다. 딸을 학교에 보낼 만큼 대중의 감정이 이렇게 변화한 것은 아버지나 오빠나 남편들의 심경이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프라이, 한국인 선교<sup>30)</sup>

이글에서 보듯이 여성교육의 초기에는 여성에 대해 차별적인 유교 관습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했으나, 점진적인 여성교육의 확대를 통해 여성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변화하고 있었다.

대한출판사 교과서는 여성교육이 애국계몽운동 차원에서 전개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근대 교육은 학문을 보급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을 계발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20세기 초, 애국 계몽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던 시기에 민족 지도자들은 근대 교육을 통해 민족

---

30) 김종수 외 3인,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법문사, 2005, 124쪽.

의식을 일깨우고, 민족의 힘을 기르기 위해 많은 학교를 세웠다. 한편 많은 여학교도 세워져 남녀평등사상과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는데, 이로써 여성들의 사회 활동도 차츰 활발해졌다. 31)

을사조약 이후 교육구국 운동이 전개된 결과 여성교육 기관이 특히 민족주의 계통의 여학교들이 증가하여 여성의 교육 기회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다수의 여성은 교육적 기회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현재의 교과서는 외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적극적인 관점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행 교과서는 여성교육 관련 내용이 여성사 서술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서술된 내용은 단순한 학교 이름의 나열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여성교육기관의 종류와 실제 가르친 교과목, 여성 교육 목적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되어 있지 않다.

개화기에 등장한 여성교육기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 둘째는 민간에서 세운 학교, 셋째 정부에서 세운 관립학교가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학교는 1886년 선교사 스크랜튼 부인이 설립한 이화학당이다. 즉 우리나라 여성교육은 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이후에 정신(1887), 영화(1892), 정의(1894), 일신(1895), 배화(1898) 등의 기독교 사립 여학교가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기독교 계통 여학교는 기독교 '선교'가 기본 목적이었다. 32)

---

31) 한철호 외 5인,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대한교과서, 2005, 115쪽.

32) 손정숙, 「신식학교, 여성에게 무엇을 가르쳤나?」, 『우리나라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2』, 청년사, 1999, 60~1쪽.

[표5] 기독교 사립학교의 교과목<sup>33)</sup>

학교명	교과목
이화학당	국어, 한문, 산술, 역사, 지리, 성경, 영어, 이과, 도화, 생리, 음악, 작문, 습자, 재봉, 체조
정신여학교	한문, 수학, 역사, 지리, 성경, 이과, 도화, 생리, 음악, 작문, 습자, 침공, 체조, 가사, 수예, 어학, 동물, 식물

[표5] 를 통해서 보면 선교사들에 설립된 여학교에서 비중 있게 가르친 과목은 영어, 성경, 재봉 등에 과목이다. 이들 기독교 학교에서 영어를 비중 있게 가르친 것은 이들 학교를 설립자들이 외국 선교사들이 많았고, 성경과 기타 가정과목을 가르친 것을 보면 그들의 교육 목적은 ‘선교’와 현모양처를 키우는 교육임을 알 수 있다.

민간 사립학교들은 1900년 국권피탈 과정에서 교육이 구국의 방법으로 선택되면서 설립되었다. 최초의 민간 사립은 여학교는 찬양회에 의해 설립된 순성여학교이다. 그 이후에 태평동여학교(1898), 진명여학교(1905), 명신여학교(1906), 숙명여학교(1906), 동덕여자의숙(1908) 등의 민간 사립 여학교가 설립되었다.

[표6] 민간 사립여학교의 교과목<sup>34)</sup>

학교	순성여학교 (1898)	태평동 여학교 (1905)	진명여학교 (1906)	명신(숙명) 여학교 (1906)	여자보학원(1908)		
					1학년	2학년	3학년
					한문	한문	한문

33) 김재인, 양애경, 허현란, 유현옥, 「한국 여성 교육의 변천 과정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 보고서』, 2000, 87쪽.

34) 김재인 외, 위의 논문, 89쪽.

교과목	천자, 동몽선습 태사신서, 재봉	한문, 국문, 영어, 산술, 지리	한문, 국문, 영문, 일본어 산술, 침선, 지지, 체조, 풍금, 역사, 척독, 도서, 습자	한문, 국문, 일본어, 산술 작문, 재봉, 편물, 자수, 조화, 이과, 가사, 체조, 음악, 도화, 습자	소학 국문 체조 창가 산술	국어 영어 산술 윤리 독본 체조 창가	국어 영어 산술 윤리 작문 독본 지리 습자
-----	----------------------	--------------------------	--	---	----------------------------	--	--

[표6] 을 통해서 보면 이들 학교에서는 한문, 국문, 산술, 침선(재봉), 체조 등을 가르쳤고, 다만 명신학교는 일본어교과가 눈에 띄는 것에서 일본식 교육을 지향했다는 특징을 알 수 있다. 1908년의 여자보학원 교과목은 학년별로 교과단계를 구분하는 등 한층 정비된 교과운영을 보여준다.

국가의 여성교육 참여는 1908년에야 이루어졌다. 이해 4월에 대한제국 정부는 ‘관립고등여자학교령’을 선포하여 5월에 관립한성여자고등여학교를 설립하였다. 설립 당시의 학칙에 의하면 “수업연한은 본과는 3개년이오 예과 및 기예전수과는 2개년으로 함”으로 되어 있다. 또한 학칙 3장 제 10조에 “본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예과는 8세 이상이오 본과 및 기예전수과는 연령 12세 이상으로 함”이라 하여 입학자격을 밝히고 있다. 학교 설립 당시에 초대교장 어윤적은 ‘인재양성은 현모의 손으로’라는 신념을 강조하며, 율곡의 어머니 신사임당을 본받으라는 강조했다. 본과에서 운영된 교과목은 수신, 국어, 한문, 일어, 역사, 지리, 산술, 이과, 가사, 도화, 재봉, 음악, 체조 외에 수예가 있으며, 외국어는 영어, 불어, 독어, 중국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sup>35)</sup> 관립 여학교도 먼저 등장한 사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외국어, 체조, 수예, 봉제 등에 가정과목을 강조하고 있어서, 사립여학교와 마찬가지로 현모양처 육성이라는 교육적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35) 앞의 김재인 외 논문, 86쪽·91~2쪽

현행 교과서에는 이와 같은 개화기 학교들의 현모양처 교육을 지향하는 특성이 서술되고 있지 않다. 교과서는 적어도 개화기에 등장한 학교의 종류와 그 성격 정도는 추가해서 서술하여야 할 것이다.

1910년 국권피탈 이후 일제는 실업교육을 강조하여 우민화 교육정책을 펼쳤다. 실업교육의 강조는 조선인의 교육 기회를 제한한 것이고, 그 결과 학생들은 차츰 일제 식민체제에 순응하게 되었다. 일제의 여성교육 또한 식민체제에 잘 적응 할 수 있는 여성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교과서에는 일제의 여성교육의 침략적 성격이 제대로 서술되고 있지 않다.

1910년대에 참사관이었던 일본인 하라는 경성여자보통고등학교를 시찰한 후 저술한 <<조선의 여>>라는 책에서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파했다.

조선인 여자 교육은 남자 교육에 비하여 뒤지지 않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경제적 융합은 식민정책의 뿌리와 꼭지가 되지만 그 가운데에도 후자, 곧 사회 감정의 융합이라는 것이 한층 더 곤란한 것이다. 그러나 일단 성공을 하면 경제적 융합보다도 더 힘 있는, 사회의 뿌리와 꼭지를 굳게 하는 시멘트가 된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부녀자를 감화시키는 데서부터 들어가는 지름길이다(중략)즉 여자가 감화하면 남자는 저절로 감화되게 마련이다. 이와 같이 밑에서부터 두드려 가지 않으면 통치의 근거가 진정하게 되어가지 못할 것이다. 조선인의 가정을 풍화하는 것은 곧 전 사회를 풍화하는 것이니 이와 같이 하여야 비로서 우리와 저들과의 감정적 융합이 영구히 될 수 있는 것이다.<sup>36)</sup>

위 글은 여성을 우선 감화시키고 그것을 통하여 남성과 가정을 동화시킴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달성 할 수 있다는 인식을 담고 있다. 여성에 대한 감화가 쉽다는 것은 여성에 대한 선입견이다. 여성이 ‘자각심이 적고 감성적’ 이

36) 김경일 지음,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푸른역사, 2004, 286쪽.

라 한 것은 여성을 수동적이고 종속적인 존재로 바라보고 있음을 나타낸다.<sup>37)</sup>

일제는 이와 같은 여성상을 바탕으로 여성교육의 목표를 식민 통치에 순응하고 가부장적 사회체제에 적합한 여성의 양성에 맞추었다. 즉 그리고 일제는 현모양처주의 교육을 지향하였다. 그러한 까닭에 인문교육보다 실업교육이 강조되었고, 실제적 지식과 기예를 가르치는 것에 중점이 두어졌다. 재봉, 수예, 가사 등 가정생활에 필요한 실기 위주의 교과인 기예 교과에 치중한 것이 이를 나타낸다.<sup>38)</sup>

식민지시기에 가운데 특히 1930년대 이후 여성교육의 기회가 두드러지게 증가되었다. 각 연도별 공립보통학교의 평균학생수를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구분해보면 [표7]과 같다.

[표7] 일제시대 연도별 공립 보통학교 평균 남녀 학생 수<sup>39)</sup>

연 도	남학생	여학생
1910년대	189.2명	12.7명
1920년대	141.6명	17.4명
1930년대	208.8명	41.3명
1940년대	348.8명	120.5명

식민지 시대 여성의 보통교육의 확대는 식민 통치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일제의 침략적 의도가 담겨져 있다. 1930년대 및 1940년대 전시 내지 준전시 체제 하에서 여성교육 기회가 급격히 증대한 것은 여성의 노동력 징발에서 여성교육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조선총독부가 제2차 초등 교육 보

37) 김경일, 위의 책, 287~8쪽.

38) 유해정, 앞의 논문, 284~5쪽.

39) 김재인 외, 앞의 논문, 117~8쪽.

급 확충 계획에 착수한 것은 1937년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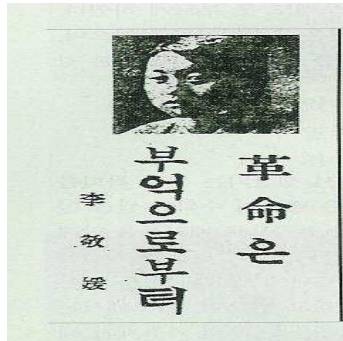
이제까지 한국근현대사 교과서가 여성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았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교과서가 여성교육을 학교 이름의 나열뿐인 서술이 아닌, 현모양처 교육을 비롯한 개화기 여성교육의 특징과 개화기에 등장한 여학교의 성격에 대한 서술 등이 추가 되어야 한다. 나아가 국권피탈 이후에 이루어진 일제의 여성교육의 확대는 식민지 지배체제를 강화하려는 침략적 성격이 있었다는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다.

## 2) 여성의 사회 진출

현행 근현대사 교과서 중에서 신여성에 대해 서술한 교과서는 대한교과서뿐이다. 그 서술은 다음과 같다.

[그림3-1] 사진과 그림을 통해 본 1930년대 : 신식 여성의 등장

1930년대, 아직도 신구 문화의 갈등은 계속되었지만, 종래의 가부장적 권위에서 벗어나 신식여성이 등장하였다. 19세기 말에 시작된 여성 교육에서 싹이 튼 우리나라의 여성 해방운동이 꽃을 피우기 시작한 것이다. (참고자료 : “서울에 탄호를 허하라’ 김진송)



“해방은 부업으로부터(‘동광’ 1932년 1월호)”<sup>40)</sup>

“‘여성해방’ ‘양성평등’의 세계는 여성 스스로 자신들의 일상에서부터 과거의 가부장적 가치관과 완전히 결별해야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세계이다”

[그림 3-2]



“어찌다가 거꾸로 신식 시어머니를 모신 구식 며느리가 다른 집 시어머니는 바쁠 때 어린애 애도 봐 주고 하는데, 나는 무슨 팔자에 신식 시어머니를 만나서 아침 저녁 기생 어미 모양으로 분세수하는 심부름만 하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는 내용이다”<sup>41)</sup>

[그림3-3] “여성들의 새로운 직업(‘여성’ 1938년 3월호)“

이와 같은 여성들만의 새로운 직업도 등장했다. 그렇지만 직업을 가진 대다수의 여성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었다“



“여성운전자 김영희(‘조광’ 1937년)“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여성들이 주로 종사하는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는 가운데 운전자나 비행사가 되는 여성도 등장하였다”<sup>42)</sup>

여기서 보듯이 이 교과서는 당시 잡지 등에 수록된 기사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신여성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 교과서가 신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성해방’ ‘양성평등’ 등의 구습에서 벗어나 가부장적 가치관에 도전하는 모습에 맞추어져 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을 서술하면서 여성들의 새로운 직업도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된다.

나머지 5종 교과서가 신여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은 근대 여성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향후 새로운 교과서에는 신여성의 등장, 신여성의 특징, 여성의 교육기회의 증진으로 말미암아 등장한 여성 직업의 확대 등을 서술할 할 필요가 있다.

신여성이라는 용어는 1911년에 일본 최초의 여성잡지인 『세이토』 잡지에서 최초로 신여성<sup>43)</sup>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효시가 되었다. 이 잡지는 남녀 평등, 성차별 금지를 주장했다.<sup>44)</sup> 1920년대 조선에 등장한 신여성들은 일본 유학과 여성들로, 일본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다. 조선에서는 1920년에 『신여자』가 창간되었고, 1922년 6월부터 『부인』이 발행되었으며, 『부인』은 1923년 10월 『신여성』으로 바뀌어 이어졌다. 이러한 여성 관련 잡지 제

---

40) 한철호 외 5인,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대한교과서, 2005, 232~3쪽

41) 앞의 책, 232~3쪽

42) 위의 책, 232~3쪽

43) 신여성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해석되고 연구 되었다. 흔히 좁은 의미에서는 부루주아 지식 계층의 여성 혹은 또는 여학교를 졸업한 지식층 여성(신영숙) 아니면 “지식 여성 중에서도 전통적인 사고, 제도나 인습에서 벗어난 사고를 가지고 사회적 행동을 하는 여성(오숙희)으로 해석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해석은 ‘문자를 해독할 줄 아는 모든 노동 여성’으로 정의 한다. 전자의 해석은 자유주의적 해석이고 후자는 사회주의적 해석이다. 신여성의 범주를 ”봉건적 가부장제에 운동성을 가진 여성“과 ”단순히 신식교육을 받은 도구적 신여성“으로 구분한다(조은, 윤택림) 신여성의 범주를 네 가지로 나눠서 해외 유학과 지도적 신여성, 고등학교 졸업의 중간층 신여성, 고등학교 졸업의 중산층 전업주부 신여성, 문자 해독 정도의 노동 신여성으로 구분한다(최숙경, 이배용)

44) 김경일, 앞의 책 인용, 22~3쪽.

호에도 나타나듯 여성을 보는 관점이 가족이나 모성의 개념이 아닌 여성 자체의 개념으로 변화한 것은 매우 주목된다. 이는 여성에 대한 자각적 인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여성의 의식 변화에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 여성이 근대교육의 수혜자로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근대여성교육이 등장하고 교육을 받은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여성들은 차츰 남성중심 가부장 질서를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신여성의 이념적 지형은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 기독교 계몽주의 세 부류로 분류 할 수 있다.<sup>45)</sup> 자유주의 신여성의 대표적인 여성은 나혜석, 김명순, 김일엽 등이다. 이들 여성들은 가부장제에 정면 도전하여 자유 연애주의를 주장했고, 개인주의를 지향하였다. 대표적인 마르크스주의 신여성은 허정숙, 송계월, 정종명 등이다. 이들은 1920년대에 유입된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 등장하여, 1924년 허정숙이 조직한 ‘여성동우회’ 이후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여성운동을 전개하였다. 기독교 계몽주의 신여성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김활란, 유각경, 황애시덕 등이 있다. 이들은 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기독교적, 이타주의적 사랑을 내세웠다. <sup>46)</sup>

신여성의 등장과 근대 여성의 다른 변화는 전문직 직업여성의 등장이다. 교육을 받는 여성이 증가하면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도 증가한다. 그러나 교과서에는 현대 여성의 선구자인 전문직 직업여성에 대한 서술이 부족하다.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는 여성 인물에 대한 서술이 전반적으로 대단히 부

---

45) 임옥희, 「신여성의 범주화를 위한 시론」, 『한국의 식민지 근대화 여성 공간』, 도서출판 여이연, 2004, 84쪽.

46) 전경옥외, 『한국여성문화사한국여성현대사1.개화기~1945년』, 숙명여자대학교아시아여성연구소, 2004.

족하다. 교과서에 수록된 여성인물들은 개화기에는 명성황후, 일제시대에는 독립운동가인 정종명, 김순애, 유관순을, 여성친일 인사로 송금선, 김활란 등을 소개하고 있다. 교과서에 반영된 여성 인물들은 독립 운동가들이 주로 반영되었고, 현대에 갈수록 여성인물이 전혀 소개되고 있지 않다. 여성인물의 배제로 말미암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직업여성의 활동 또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 진출도 활발해져 갔다. 여성 단체와 교육 분야, 의료계와 종교계, 그리고 요식업 및 기계 생산직 공장과 회사 등의 새로운 업종에 여성의 진출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스스로 사회의 한 구성원이라는 자각을 가지게 되었다.<sup>47)</sup>

위는 한 교과서는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한 서술을 옮긴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누구나 한 눈에 알 수 있다. 여성의 사회 진출 양상의 이해를 위해서 내용이 더 구체적이어야 할 것이다.

근대는 여성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시기이며, 그 변화 속에서 등장한 것이 전문직 직업여성이었다. 이들은 현대여성의 선구자적인 삶을 살았다. 그 삶이 제대로 서술되어야 근대여성의 다양한 삶이 제대로 서술될 것이다.

여성을 차별했던 기존 사회에 도전하여, 각 분야별로 ‘여성 최초’라는 수식을 얻고 있는 직업여성들을 살펴보자. 여성의 전문직 진출은 기존의 남녀차별적인 직업의 영역에서 여성 차별의 벽을 깨었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최

---

47) 김한중 외 5인,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2005, 114쪽.

초의 여의사인 박에스더, 최초의 여성 화가인 나혜석, 세계적인 여성 무용가인 최승희, 여성 최초 박사인 김활란, 영화 청연으로 알려진 박경원과 이정희, 여성 최초 기자인 최은희 등이 눈에 띈다. 이들이 교과서에 수록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sup>48)</sup>

## V. 여성의 역사적 공헌

### 1) 독립운동

우리의 근대 가운데 30여년은 일제의 식민지배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 동안 식민지배의 시련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독립운동이 전개되었다.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반영된 여성의 독립운동은 3.1운동에서의 유관순의 활동과 근우회의 활동이 비중 있게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교과서 서술은 여성의 독립 운동에 대해 여성사적 의의를 전혀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관순의 활동에 대한 어느 교과서의 서술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뿐만 아니라 유관순이 활약한 천안을 비롯하여 남원, 밀양, 함천 등지와 북한 지방의 정주, 맹주, 강서 등지에서 수많은 군중이 일제에 의하여 학살당하였다.<sup>49)</sup>

3.1운동, 그 가운데에서도 유관순이 앞장섰던 아우내 장터 만세 운동은 장렬하였다. 아직도 아우내 삼거리에는 그 날의 울부짖던 함성이 메아리치는 듯싶다. 유관순의 애국혼이 틈틈이 박혀 있는 아우내 유적지와 그

---

48) 이들 여성 중에서 친일인사도 있다. 필자의 생각은 이들 여성들의 업적과 함께 이들의 과오인 친일 부분도 함께 교과서가 반영해야 한다.

49) 김광남 외 4인,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두산출판사, 2005, 207~8쪽

일대를 돌아보며 그 날의 함성소리를 되새겨 보자.<sup>50)</sup>

이처럼 여성의 3.1운동은 주로 유관순의 순국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금성 교과서의 서술은 ‘대한여자독립선언서’가 사진 자료가 첨부되어 있어서 여성의 독립운동이 유관순에 국한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각 교과서 모두가 3.1운동 관련 서술에서 여성운동사적 측면을 언급하는 않고 있다.

3.1운동은 서울과 평양 등을 기점으로 삼시간에 지방으로 전파되어 거국적이고도 거족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만세 시위가 진행되었다. 3.1운동에서 의미 있는 선언서의 전달과 인쇄, 태극기의 제작에서 여성이 기여한 바가 컸다. 또한 일부 만세시위 운동은 여성들이 주동하여 계획했다. 개성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한 전도사 어윤희, 천안 아우내 시위를 계획한 유관순, 대구모의 만세시위를 주도한 해주의 기생들, 대구와 부산에서 만세시위를 주도한 여교사와 여학생들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여성들에 의해 만세 시위가 주도되었다.<sup>51)</sup> 이처럼 3.1운동 당시 여성들이 시위를 조직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지만, 교과서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3.1운동 때에는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이 참여했다. 여학생, 여교사, 부녀자, 심지어 기생, 여공 등 각계각층 여성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에 의해 더욱 의미 있는 투쟁으로 확산 되어 갔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기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이다. 스스로 천한 여인들이라고 비하하면서 살았던 기생들까지도 만세운동에 조직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사실은 3.1운동의 범민족적 분위기를 단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 서울에 있는 8백여 명의 기생들은 화류계 여

---

50) 김한중 외 5인,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2005, 180쪽.

51) 박용옥, 『한국 여성 근대화의 역사적 맥락』, 지식산업사, 2000, 475쪽.

성이라기보다 독립투사들이었다. 서울 시내 100여 군데 요정은 독립운동가의 비밀연락 장소로 쓰이고 있었다.<sup>52)</sup> 교과서가 단편적으로 유관순만 서술할 것이 아니라 많은 여성들이 구국운동에 참가했음을 서술해야 한다.

3.1운동의 여성사적 의의에서 놓칠 수 없는 것이 유교적 여성관의 극복이다. 3.1 운동은 여성들이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유교적 여성관에 벗어나 본격적으로 사회,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사회문제에 참여를 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 당시 검거 자료를 보면 여성 참가들 중에 교사나 학생 같은 지식인의 비중이 46.3%로 남성보다 11.2%나 높다. 이것은 근대적인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사회에서 서서히 독자적으로 자기 역할을 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sup>53)</sup> 교과서는 이와 같은 측면에서의 3.1운동의 여성사적 의미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어서 1920년대 후반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 이후 국내의 독립 운동 세력은 사회주의 진영과 민족주의 진영으로 나뉘었다. 양쪽 진영 간에 ‘협동론’이 등장하면서 ‘신간회’가 조직 되었다. 이에 역시 두 진영으로 나뉘어 대립하던 여성운동계도 ‘근우회’를 조직하여 좌우진영의 통합을 모색하였다. 이에 대한 어느 교과서의 서술을 보면 다음과 같다.

민족 유일당 운동으로 신간회와 근우회가 조직되었다 (중략) 신간회의 창립은 여성 운동계에도 적지 않는 영향을 끼쳐 여성 운동의 통합, 단일화를 촉진시켰다. 이 움직임을 주도한 사람들은 도쿄 유학생들인데. 이들은 민족주주와 사회주의를 초월하고 국내외 모든 여성 단체들을 규합하여 근우회를 창립하였다. 근우회는 창립이념을 여성

---

52) 이윤희, 「3.1운동의 여성의 역할」, 『유관순과 3.1운동의 현대적 조명 : 탄신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 대회』, 천안대학교 유관순연구소, 2002.

53) 강정숙, 「일제 강점하의 여성운동」, 『우리 여성의 역사』, 청년사, 2000, 331쪽.

들의 공고한 단결과 지위 향상에 두고 남녀평등과 여성교육의 확대, 여성노동자의 권위 옹호와 구습타파, 생활 개선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신간회와 근우회는 출범직후부터 일제의 극심한 탄압을 받았으며 얼마 되지 않아 계열간의 이념 대립이 재발하고, 주도권 장악을 위한 갈등으로 인해 원활한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았다. 그러다가 정책 노선을 변경한 코민테른의 지시를 받은 사회주의 계열이 민족주의와 협동 전선을 포기함으로써 신간회와 근우회는 해체되고 말았다.<sup>54)</sup>

이 서술은 신간회의 하위 단체라는 차원에서 근우회를 소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우회에 대한 설명이 신간회에 비해 간략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교과서 여백 부분에 ‘근우회 중심인물’로 김활란, 유영준, 박원민 등 인사를 언급하고, 읽기자료에 ‘근우회 취지문’을 서술하여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달리 근우회를 두 번이나 언급한 교과서도 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간회는)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에 관계하고, 청년, 여성, 형평 운동 등과도 조직적으로 연계하는 등 활동을 폈다. 이러한 가운데 1927년 5월에는 자매단체인 근우회가 발족하였다.<sup>55)</sup>

여성 단체들은 1927년 신간회의 창립을 계기로 ‘조선 여자의 공고한 단결과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민족 협동 전선체인 근우회를 출범 시켰다. 근우회는 기독교 계열의 여성과 사회주의 계열의 여성이 함께 참여하였다.

근우회는 기간지 <<근우>>를 발간하고, 전국 순회공연과 강연회 등을 통해 여성해방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한편, 노동운동과 농민 운동 등 사회운동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그러나 1931년 신간회가 해소되면서 근우회도 해체되고 말았다.<sup>56)</sup>

54) 김광남 외 4인,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두산출판사, 2005, 207~8쪽.

55) 김한중 외 5인,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2005, 209쪽.

56) 김한중 외 5인,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2005, 217쪽.

이어서 이 교과서는 본문 하단에 <인물 엿보기 - 여성운동의 대모, 정종명>을 소개하면서 “근우회의 창립을 주도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정종명 외에 근우회의 중심인물에 대해서는 서술하고 있지 않아서 근우회의 중심인물에 대한 서술이 부족한 편이다.

1920년대에는 3.1운동과 문화통치를 계기로 정치·사회적 변화가 일어난다. 그 결과 사회운동도 활성화되었고, 여성의 사회의식도 진전되어 많은 여성 단체들이 등장하였다. 이렇게 활발하던 여성운동은 기독교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기독교 계통을 제외하고 1923~4년을 고비로 거의 활력을 잃게 된다. 1924~5년경에 사회주의 여성운동론이 등장하면서 많은 지식인 여성들이 사회주의 운동가로 변신한 때문이다. 이 무렵부터 일부에서 협동전선 결성론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1926년 11월의 <정우회 선언>으로 양 진영 간에 제휴가 공식화 되었으며, 여성운동계에도 양 진영간의 협동론이 등장하게 된다.<sup>57)</sup>

근우회 창립은 1927년 2월 14일 재경 동경여자유학생 친목회의 발기로 열린 여자와국유학생친목회에서 여성 단일단체조직에 합의하고 발기총회 준비위원을 선정함으로써 시작되었다.

[표8] 근우회 창립 중심인물들<sup>58)</sup>

계열	인물
기독교계	김마리사, 김선, 김영순, 김활란, 김일엽, 김복순, 길정희, 양매륜, 방선영, 손정규, 신알벳트, 유각경, 이은혜, 차사백, 최은희, 홍에스더, 이효덕
사회주의계	강정희, 정칠성, 조원숙, 유영준, 이현경, 이덕요, 박원희, 정종명, 황신덕, 주세죽

57) 남희숙, 「1920년대 여성운동에서의 협동 전선론과 근우회」, 『한국사론 25호』 서울대 국사학과, 1991, 205~210쪽.

58) 한규무, 「일제하 한국 기독교 여성 운동과 근우회」, 『한국 기독교와 역사』 3권, 한국

두산 교과서는 근우회 중심인물로 김활란, 유영준, 박원민 등의 인사를 언급하고 있다. 이 중에 박원민은 박원희의 오타로 보인다.<sup>59)</sup> 이와 같은 교과서의 중대한 실수는 여성사에 대한 인식이 깊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 우려된다.

대부분의 현행 교과서는 근우회의 다양한 활동을 서술하지 않고 있다. 근우회가 처음부터 사회운동에 적극 참가하기에는 어려움 있었고, 그 때문에는 초기에는 주로 학생운동이나 사회운동의 실체를 조사, 파악하는 활동을 했었다. 그러나 1929년 광주 학생운동 및 이에 이은 여학생 만세 시위에는 직접 참가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1930년 1월의 경성여학생 시위사건에 깊숙이 개입하여 간부가 대거 검거된 바 있다(근우회 사건)<sup>60)</sup>

근우회는 중점사업인 선전 계몽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기 위하여 전국을 4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각 간부들을 파견하여 지방순회강연(1929년 5~7월)을 했고, 기관지 『근우』를 발간했다. 또한 근우회는 여성운동가의 양성을 위한 1주일 과정의 부인강좌를 개설한 바 있고, 일반 여성을 위한 야학 설치를 계획하기도 했다.

이 밖에 근우회는 노동여성의 조직화에 노력하여 1929년 전국대회에서는 노동부를 설치하였고, 노동여성을 주된 대상으로 한 경동(京東)지회를 설립(1930년 4월 15일)하였다. 이와 아울러 노동 부인에 대한 통계작성 보고를 전국의 지회에 요구하는 한편, 광주제사분규와 부산맹파사건을 당지 지회에 조사케 하고, 재일노동자 방축에 대해 내무성에 항의문을 발송키로 하는 등

---

기독교역사연구소, 1994, 227~30쪽.

59) “중심 인물로 김활란, 유영준, 박원민(?) 셋을 지명하였는데. 박원민은 박원희의 오류가 아닌가 싶다” ; 신영숙, 「젠더 관점에서 본 역사교육과 한국사 교과서」, 『21세기 한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의 방향 - 제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2002, 206쪽.

60) 신영숙, 「근우회에 관한 일연구」, 『이대사원』 제 16호, 이화여자대학교, 1979, 60~3쪽.

노동운동의 조사와 지원 활동도 전개했다.<sup>61)</sup>

이상과 같은 근우회 활동은 이 단체가 독자적 항목이 될 만한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음을 알려준다. 그러나 교과서는 근우회를 신간회의 하위단체로 서술하고, 신간회에 비해 분량도 적다. 그 결과 근우회의 다양한 활동이 제대로 소개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향후 교과서는 근우회를 신간회에 하위단체로서가 아닌, 독립적 단체로서 서술을 해야 할 것이다.

## 2) 광복 이후 국가수립과 여성참정권의 실현.

현행 교과서에는 국가수립과정에서 이루어진 여성의 기여에 대해 전혀 서술하지 않고 있다. 여성사 서술이 주로 일제시대에 치중되어 있음은 앞서도 지적했다. 이처럼 여성사 관련 서술이 현대로 갈수록 분량도 적어지고, 간략하게 서술된 때문에 여성의 정치적 기여가 서술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해방 이후 국가 수립 과정에서 여성의 선거권 획득과 여성의 정치참여가 이루어진 것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그 원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여성이 처음으로 참정권을 얻고 투표에 참여하게 된 것은 1948년 5월 10일의 선거 때였다. 외국의 경우 여성의 참정권 획득에는 100여 년에 걸친 투쟁이 필요하였다. 1939년 뉴질랜드에서 여성이 참정권을 획득된 이래 각국의 여성이 참정권을 획득해 간 역사를 보면,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독일과 미국 등의 여성이 참정권을 획득했고, 프랑스나 일본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의 여성들은 세계대전 끝난 이후에 참정권을 인정받았다.<sup>62)</sup>

61) 한국여성연구회 여성사분과 편, 『한국여성사 - 근대편』, 풀빛, 1992, 163~4쪽.

62) 김수자, 「여성의 첫 참정권 행사 1948년 5·10 선거」, 『우리나라 여성들은 어떻게 살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여성은 외국에 비해 참정권을 손쉽게 실현한 편이다. 실제로 우리 여성들이 참정권 획득을 위한 투쟁을 한 결과가 아니라, 남한단독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 질서 확립’을 내건 미군정에 의해 여성참정권이 주어진 측면이 크다 63) 1947년 미군정이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보통선거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에 의해 우리나라는 ‘남녀 구별 없이 만21세 이상은 선거권을, 만 25세 이상은 피선거권을’ 갖게 되었다.64) 여성의 참정권 실현은 이처럼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여성이 정치활동의 주체로서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꾀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처음 실시된 48년 선거는 반쪽짜리 선거였다. 미군정의 좌익에 대한 탄압으로 좌익은 배제되고, 우익만이 선거에 참가하였다. 1948년 선거에서 우익여성단체는 본연의 여성운동보다는 자신들의 국회 진출을 위한 활동에 주력하였다.

1948년 선거에서 여성 입후보자는 18명이다. 1948년 선거에 참여한 이들을 정리하면 [표9] 와 같다.

[표9] <제헌국회의원 선거 여성입후자 경력>65)

이름	나이	출마지	학력	직업	주요경력	득표수	득표율
김선	39	서울중구	중졸	출판업		2,357	3.6%
황애덕	56	서울중구	와세다대	부인운동	전국여성총연맹위원		6.5%

『앞을까2』, 187쪽.

63) 이혜숙, 「미군정기 여성운동과 여성정책」, 『한국현대여성사』, 36~7쪽

64) 김수자, 앞의 논문, 176쪽.

65) 김수자, 위의 논문, 178쪽.

					독촉애부생활부장	4,253	
박순천	51	서울종로 갑	동경여자 일본대	신문사 사장	부인신보사 사장 독촉애부 부위원장	5,518	15%
황현숙	46	동대문을	일본공빈공 린 여자신학교 졸	입법위원	조선여자국민당 총무 독촉국민회 부인부장	3,985	10%
김활란	50	서대문을	콜롬비아대 졸	이대총장	이대총장	8,340	15%
김 선	53	마포구	일본여자 신학교	민주의원	여자국민당 부위원장	2,476	4.4%
박승호	52	용산구	동경진전 여대졸	입법의원	독촉애부 위원장	5,680	9.3%
이순선	44	인천갑	중졸		교사, 독촉애국부인회	1,240	2.6%
이기정	40	포천군	숙명여고 졸	교장	독촉애국부인회	610	2.3%
김현숙	42	수원갑	중졸	교사	독촉애국부인회	3,570	8.2%
이춘자	45	충주군	중졸	산과	부녀운동, 독촉국민회	1,003	1.7%
박옥신	51	순천	중국 호주군여숙	교사	애국부인회 순천지부장	1,568	5.6%
김선인	40	대구갑	동경여의전 졸	의사	선인의원 개원	2,875	13%
최금봉	53	안동갑	동경여의전 졸	의사	애국부인동지회	2,382	6.2%
김철안	42	금천갑	일본명치대		애국부인회	4,943	13.8%
길필애	51	부산정	일본대		적십자사 사장	4,209	10.7%
최정순	44	울산갑	전명여상졸		교사, 독촉애국부인회	1,621	4.5%
이정숙	27	울산갑	고졸		독촉애국부인회	1,612	4.5%
박인숙	41	춘천	여고졸	사회사업	부인운동, 부인회	905	4.2%

[표9] 을 보면 여성후보자들 대부분이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졌고,

40~50대의 여성들이 많았다. 여성 입후보자의 경우는 2명을 제외한 16명 모두 정당 및 단체 소속으로 출마했다. 이를 단체 및 정당별로 분류해 보면, 대한독립촉성애국부인회 7명, 대한부인회 3명, 조선여자국민당 2명, 대한독립촉성국민총연맹 2명, 여성단체총연맹 1명, 애국부인동지회 1명 등이었다.

선거 과정에서 미군정의 부녀국과 여러 여성단체에서는 선거 관한 강연회나 영화 상영을 통해, 그리고 언론을 통해 여성들의 선거에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독려했다. 특히 대한독립촉성애국부인회의 기관지인 『부인일보』는 연일 여성의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글을 실었고, 여성후보자들의 개인프로필과 선거사무실 방문기, 선거공약 등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글들은 당시 상당수의 여성이 총선거를 남녀평등권을 확보하는 결정적 기회로 인식하였음을 보여준다.<sup>66)</sup> 그러나 선거에서 여성입후보자는 단 한명도 당선되지 못했다. 이 결과는 여성이 오랫동안 남성의 영역이었던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렇지만 여성의 정치계 진출은 여성이 남성의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교과서는 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 3. 여성의 사회적 공헌

전후 1960~70년대 박정희 정권은 성장 위주의 급속한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박정권은 노동집약적 수출산업을 육성하였다. 이 결과는 자연히 노동자들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졌으며, 특히 여성노동자들

---

66) 이배용, 「미군정기, 여성생활의 변화와 여성의식 1945~8」, 『역사학보』, 제 150호, 195쪽.

은 더욱 열악한 사정에 놓였다. 그리고 이러한 처지에 있던 여성노동자들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 노동운동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현행 교과서의 노동운동 서술은 YH사건과 전태일 분신 사건을 함께 묶어서 소개하는 데서 그치고 있다. 특히 여성노동운동에 대해서는 단순히 YH사건만이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196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미혼 여성노동자 계층이 등장한 것과 산업화 과정에서 여성노동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던 것 등의 사실이 서술에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다. 어느 교과서에 서술된 여성운동을 들어 살펴보기로 하자.

대표적인 가발 생산 업체였던 YH무역이 1979년 무책임한 폐업을 하자, 노동자들은 회사 정상화를 요구하며 야당인 신민당사에 들어가 농성을 하였다. 농성은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으나, YH사건은 유신 체제의 몰락의 한 원인이 되었다.<sup>67)</sup>

이 서술은 YH사건을 노동운동사적 맥락에서 살필 뿐, 여성사적 차원의 맥락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다른 교과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서, 여성노동운동은 여성사적인 시각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한국 사회가 경험한 근대화는 고도의 경제 성장이 중심을 이룬 압축된 산업화 과정이었고, 따라서 서구 사회가 역사적으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경험한 근대화와는 달리 파행성이 심하였다.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1960년대로 들어서면서 경공업 위주의 산업체로 구성된 노동시장에는 수많은 미혼 여성들이 유입되었다. 주로 노동 집약적인 섬유산업과 의류산업에 고용되어 있던 여성노동자들의 노동 시간은 1963년에 주당 50시간, 1964년에는 주당 56시간, 1965년 주당 57시간으로 계속 증가되었다. 장기간 노동에 따른 임

---

67) 김한중 외 5인,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2005, 336쪽

금을 보면 월 평균 임금을 달러로 환산 했을 때, 1964년에는 월 15.2달러(3880원), 1970년대 44.8달러(1만 4150원)였다. 220시간 이상을 일하는 한국노동자의 1970년의 월 평균 임금은 미국노동자들의 약 13시간 임금과 비슷하였다. 일본의 경우는 1970년대 월 평균임금이 한국의 4.5배 정도인데, 노동시간이 한국보다 주당 10시간 이상 짧았기 때문에 시간당 임금은 훨씬 더 높다고 볼 수 있다.<sup>68)</sup> 이들 여성 노동자들은 대부분 저임금, 저연령, 저학력이었다. <sup>69)</sup> 이들은 유교적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했고, 또한 국가의 근대화를 위해 산업 일꾼으로 희생되었다.

헤어나기 힘든 가난과 장시간 노동, 비인간적인 대우 등의 현실은 감수성 예민한 10대 후반 20대 초반 여성들에게 커다란 박탈감을 갖게 하였다.<sup>70)</sup> 박탈감과 실망감으로부터 이들은 자신의 인식이 깨어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의식을 갖추게 되면서 다른 동료노동자들에 대한 신뢰와 연대의식도 고양되었다.<sup>71)</sup> 연대 의식의 등장은 여성노동자들이 단결하여 노조를 결성하고 임금과 근로환경의 개선을 위한 투쟁에 나서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YH사건과 대표적인 여성노동 운동인 동일방직사건을 같이 언급한 교과서도 있다. 이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68) 강인순, 「산업화, 개발국가와 여성(1960~70년대)」, 『한국현대여성사』, 한울아카데미, 2004, 78쪽.

69) 최윤아, 「역사교과서 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 서술과 여성노동문제 - 동일방직 노동조합사건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22쪽

70) 1960년대 이후 75년까지 15~24세 연령층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0~50%에 달했으며, 75년의 경우에도 14세의 경제활동참여율이 17.7%로서 나이 어린 소녀들의 노동력 참여가 상당히 높았다. 1970년 미혼여성이 전체 여성노동자의 77.5% 차지했고, 생산관련직의 경우는 89.7%를 차지하고 했다.

71) 장미경, 「근대화와 1970~70년대 여성 노동자」, 『경제와 사회』, 2004년 봄호, 117~9쪽.

정부가 수출 경쟁력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 운동을 통제하고 저임금 정책을 취함에 따라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에 희생당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항의하여 1970년 11월에 서울 평화 시장에서 재단사로 일하던 전태일이 분신하였다. 이 사건으로 1970년대에 노동 운동이 전개 되고, 학생들과 지식인들도 노동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 동일 방직 노동 여성 노동자의 노동운동은 노동 문제를 사회 문제 화시켰으며, YH 무역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 운동은 유신체제의 몰락에도 영향을 끼쳤다.<sup>72)</sup>

이러한 방식의 기술은 다른 교과서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것이다. 동일 방직 사건은 YH사건과 함께 1970년대 여성 노동운동의 대표적인 사건이다. 동일방직은 1972년 당시 부녀부장 주길자가 한국최초의 여성지부장으로 선출되면 주목을 받았다. 여성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는, 소수의 남자직원들이 동일방직 노조의 주요 간부직을 차지하고 있었다. 남성 노동자들은 대부분 웬만한 기술을 갖춘 기능공으로 여자노동자들보다 보수도 배 이상을 받았고, 작업시간도 아침 출근, 저녁 퇴근으로 3교대인 여자 노동자들에 비해 월등한 대우를 받았다. 노동조합이 결성되었을 당시 대부분의 간부직은 남성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따라서 노동조합을 깨뜨리려는 기업주들은 노동조합의 힘의 원천이 남자 노동자라는 판단아래 남자 간부를 매수하는 경우가 많았다.<sup>73)</sup>

---

72) 주진호 외 4인,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5, P.354쪽.

73) 동일방직복직투쟁위원회, 『동일방직노동조합운동사』, 돌베개. 1985. (최윤아, 앞의 논문, 39~42쪽에 서 재인용)

동일방직의 예를 살펴보면 회사 측이 여성 노동자들의 노조운동을 탄압할 때 사용자는 언제나 남성 노동자들을 매수하여 폭행과 성적 모욕을 동원하여 운동을 진압했다. 동일방직 노조의 운동사는 폭력과 성폭력으로 점철되어 있다.<sup>74)</sup> 이와 같이 여성노동의 특수한 억압조건들은 여성으로서 받아야 하는 편견, 무시, 성을 매개로 한, 여성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가부장적 사회질서 속에서 여성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여성 억압적 구조로 말미암아 많은 여성들이 성적 편견까지 감당해야 했다.

그럼에도 어느 교과서도 60~70년 노동구조 속에서 기능한 여성 억압성을 서술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여성 노동자들은 가부장적 여성 억압에 구조 속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감수하면서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바지 하였다. 이들이 사회에 기여한 바는 교과서가 반드시 기록으로 남길 의무가 있으며, 나아가 여성노동운동을 단순히 노동운동사로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사적 맥락에서 서술되어야 할 것이다.

#### IV. 결론

이제까지 현행 7차 교육과정 근현대사 교과서의 여성사 관련 서술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확인 할 수 있는 현행 교과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성사 서술 분량이 5% 안팎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현행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여성 관련 서술 분량은 우리 근현대 여성의 삶을 담는데 매우 부족하다. 이러한 양적 한계는 불가피하게 교과서가 여성을 배제하는 문제점을 갖도록 만들고 있다.

---

74) 최윤아, 앞의 논문, 43쪽.

두 번째로 확인할 수 있었던 문제점으로는 한국근현대사 교과서가 대체로 남성 중심적인 시각에서 별로 벗어나지 못한 채 여성을 서술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여러 교과서 속의 여성의 모습이 주로 희생적인 어머니, 아내, 딸로서 강조되고 있는 점이 그 증거이다. 이는 여성을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닌 가부장질서 속에서 희생적인 모습을 강조하려는 관점이 작용한 결과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인격을 형성해가는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임에도 여성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담겨진 부분이 다수 눈에 띄게 되었다. 사회가 발전하고 여권의식이 성장하고 있지만, 교과서의 여성에 대한 시각은 아직도 보수적이고 편향적이며 왜곡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세 번째로 문제점으로는 근현대 여성의 다양한 모습과 사회에 대한 기여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한 서술 분량이 지극히 적고, 신여성과 전문직 직업여성 등 다양한 여성계층의 출현에 대해서도 제대로 서술하고 있지 못하다. 여성이 역사적으로 다양한 기여를 했지만, 교과서가 이를 제대로 서술하지 못하고 있다. 일제에 대항하여 국가의 독립을 위해 여성들이 활동한 것에 대한 서술도 부족하고, 해방 이후에 국가 수립 과정에서 여성이 참정권을 획득하고 정치에 참여한 사실에 대한 서술도 빠져있다. 60~70년대 산업화 및 민주화 과정에서 국가 차원의 가부장적 여성 억압 구조에서 희생되었던 여성 노동자에 대한 서술도 부족하다.

이상의 현행 본론에서 고찰한 바에 더하여, 현행 역사교육과정에서 가시화되지 못한 역사 속의 여성 경험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역사교육과정에 대한 페미니즘적인 관점이 검토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일부 선진국의 경우 역사 교육과정에 여성사 서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여성의 경험을 포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 예로 영국의

경우를 들 수 있다.

1991년 제정되어 1995년에 개정된 영국 국가 역사교육과정(History in the National Curriculum)도 기본적인 골자는 학생들의 연령 발달에 맞추어 연대기적으로 구성된 주제 학습이다. 지식과 이해, 역사 해석, 역사자료의 이용으로 제시된 달성목표에 따라 학생들은 지리적 다양성(제국, 국가, 지역, 도시, 농촌 등)과 사회 부문에서의 다양성(정치, 경제, 인구, 사회, 문화, 종교, 일상생활 등)을 골고루 학습하게 되어 있다. 영국의 국가 역사교육과정의 특징은 시기별 학습 단원의 일상생활 부문에서 여성과 남성의 경험을 구분지어 이해하도록 하는 데 있다.<sup>75)</sup> 영국의 사례처럼 우리도 역사 교육과정에 여성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역사교육과정에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일단 현행 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여성사 인식에 대해 분석 비판하고, 동시에 여성사 교육에 내용 구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사 교육의 내용이 될 여성사 연구가 심도 있게 진행 되어야 한다. 여성사 연구를 위한 사료의 발굴과 연구 인력의 수적 증가, 여성사 연구에 대한 역사학 및 역사교육계의 인식 개선 등이 요구된다. 나아가 여성사 교육을 위한 자료집을 만들고, 내용 구성의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을 여성사 연구자와 여성사 교육 연구자, 여성사 교육자들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

75) Department of Education and Science, History In The Curriculum(English), HMSO, March, 1991 참조(신영화, 「여성사 교육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역사교육』, 91호, 2002, 재인용)

## <참고문헌>

사료(교과서)

김한중 외 5인,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2005

김광남 외 4인,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두산출판사, 2005

김홍수 외 5인,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천재교육, 2005

주진호 외 4인,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5

김종수 외 3인,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법문사, 2005

한철호 외 5인,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대한교과서, 2005

저서

곽삼근, 『여성과 교육』, 박영사, 1998.

박용옥, 『한국 여성 항일 운동사연구』, 지식산업사, 1996.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 지음, 『우리 여성의 역사』, 청년사, 2000.  
정진성, 안진 외, 『한국현대여성사』, 한울아카데미, 2004.  
한국여성연구회 여성사분과 편, 『한국여성사 -근대편』, 풀빛, 1992.  
태혜숙 외, 『한국의 식민지 근대화 여성 공간』, 도서출판 여이연, 2004.  
김경일 지음,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푸른역사, 2004.  
전경옥 외, 『한국여성문화사한국여성현대사1.개화기~1945년』, 숙명여자대학교아시아여성연구소, 2004.  
박용옥, 『한국 여성 근대화의 역사적 맥락』, 지식산업사, 2000.  
이배용 외, 『우리나라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2』, 청년사, 1999.

## 논문

김재인, 양애경, 허현란, 유현옥, 「한국 여성 교육의 변천 과정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 보고서』, 2000.  
정현백, 「여성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사회와 사상』, 제 19호, 1990.  
신영화, 「여성사 교육, 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역사교육』 91집, 2002.  
김경일, 「한국 근대사회의 형성에서 전통과 근대 - 가족과 여성 관념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제 54집, 1998.  
권숙인, 「일본제국시대(1868~1945)의 여성의 지위 : 정치적 보수주의와 양처현모의 이념의 대두」, 『한국문화인류학』, 30-1호, 1997.  
이배용, 「한국 근대 여성의식 변화의 흐름」, 『한국사시민강좌』, 제 15집, 1994.

정진성, 「여성억압제의 전통과 근대 - 한국과 일본의 비교」, 『창작과 비평』 겨울호, 1996.

정현백, 「새로운 여성사, 새로운 역사학」, 『역사학보』, 150호, 1995.

최숙경, 「한국여성사연구의 성립과 과제」, 『한국사시민강좌』, 제15집, 1994.

신영숙, 「젠더 관점에서 본 역사교육과 한국사 교과서」, 『21세기 한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의 방향 제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2002.

남희숙, 「1920년대 여성운동에서의 협동 전선론과 근우회」, 『한국사론 25호』 서울대국사학과, 1991.

한규무, 「일제하 한국 기독교 여성 운동과 근우회」, 『한국 기독교와 역사』 3권,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4, 227~30쪽.

신영숙, 「근우회에 관한 일연구」, 『이대사원』 제 16호, 이화여자대학교.

이배용, 「미군정기, 여성생활의 변화와 여성의식 1945~8」, 『역사학보』, 제 150호.

장미경, 「근대화와 1970~70년대 여성 노동자」, 『경제와 사회』, 2004년 봄호.

이영자, 「페미니즘」, 『한국논단』, 1999, 208쪽.

## <ABSTRACT>

**analyze on women history of modern Korean history  
text book**

**won young, Lee**

**Major in history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at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women history in authorized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textbooks of the current 7th Educational Curriculum. Under the current curriculum,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is taught as one of the further elective courses, defined as an independent subject. In this study, authorized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textbooks were chosen as the subject of analysis because it is possible to analyze women-related content more deeply from the viewpoint confined only to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n history, not overall history of Korea. Therefore, the study examined women history content in 6 types of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textbooks currently adopted and used at high schools in Kore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current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textbooks, the biggest problem was found that women history content accounted for as excessively small portion as about 3 to 6%, which implies that textbooks did not take into consideration women history positively. Such deficiency in content functions as a limit preventing effective descriptions of various situations of women, after all.

In general, women-related content in the textbooks talked about women, remaining at men-centered viewpoint. Although it is true that the life of women in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n history was controlled by the patriarchic system, the textbooks were found to put more emphasis on their conformity to the system through descriptions or pictures, as well as their identity as a sacrificing mother, wife or daughter, rather than their struggle to escape from such a patriarchic order, which results in viewing women not as an independent person, but simply as a dependent being.

Moreover, textbooks were not found to specifically address various situations and contributions to society of modern and contemporary women. On top of seriously insufficient statement about entry of women in public affairs, appearance of a variety of women classes such as new and career women were not fully mentioned. Despite their diversified contributions in history of Korea, textbooks were found to fail to fully reflect such contributions of women including activities of the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women for the independence of Korea from Japan, their participation in politics by winning women suffrage, the biggest change for women,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and the life of women workers who contributed at the expense of their lives under the suppressive system by the government in course of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of the 60's and 70's.

Given the findings as discussed above, women history content in the current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textbooks is considered lacking in volume and written from a men-centered perspective. To solve such problems, experiences of women should be more positively incorporated into history education curriculum for the future, while feministic viewpoints should be considered affirmatively. To this end, it is most important to conduct in-depth

studies on women history as the subject of women history education, together with further efforts to excavate historic materials, increase of research workforce, and change in the attitude on the part of history study circle and history education society about women history research.